

2019년 8월 23일, 서귀포시 예래동(하예2동) 강종옥 씨 댁, 류진옥 조사.

강종옥(여, 1929년생, 서귀포시 하예2동)

-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태어나 90년째 거주 중이다.

- 줄거리: 옛날에 부모 없는 허웅애기들에게 밤이면 죽은 어머니가 이승에 와서 잘챙겨 주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허웅애기들의 어머니는 이승에 오지 못하게 되었고, 그때부터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문이 막혀 버렸다.

[제보자] 허웅애기가, 난 할망들 곳는 말 나가 들은 거는 연날 허웅애기 부모네가 몬딱 돌아가 불언, 죽으난. 게난 동넷 할망들이 오랑 보민 머리도 판칙 빚고 웃이영 판치릉 허게 출리난

“아이고, 설운 얘기 어멍 아방은 없곡 헤도 어떠난 누게가 헤 주난?”

허민 짖이민 어머니가 오라그네 문 헤동 간덴.

겅허멍 허난 아니 죽은 사람이 이제 영 태기 허영 허주. 그때부터 못 뎅기게, 죽엉 간 사람 이승드레 못 다니게 허영 막았젠. 경행 못 돌안. 옛날 할망들 골아난 거 기억 난.

[조사자] 처음에는 왔다갔다 했는데.

[제보자] 그 후젠.

[조사자] 어떻하다 못하게 됐수가?

[제보자] 허웅아기들이 옷도 헐게 입고 머리도 아이 빚고 추접하게 뎅기당. 한번은 보난 머리도 판칙 빚지고 얼굴도 곱고 웃이영 행 입으난. 그 아기들이 동네 할망이 어떠난 머리도 빚고 느냥으로 웃이영 행 입없옌. 골아보난 짖이민 어머니가 오랑 옷도 허영 오랑 입지고 머리도 빚져 주고 헌덴. 경 골으난 그 할머닌 들었다그네 강 이만 저만 행 죽은 사람이 오랑 아기들 경 했던 하난 그 후제 죽은 사람 살양 오지 못허게 딱 막아불언.

거난 죽은 어른 돌아오지 못 하게 헷젠, 옛날 할망들 골은 말 들언.

[조사자] 누가 막아부난?

[제보자] 법에서 막았주게. 죽은 사람 살양 오라그네 헐 것이 아니엔 헤그네. 그루젠 허옹 애기들 부모들 못 뎅기게 허고 다른 사람도 죽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헷젠. 옛날 할망들 옛날엔 할망들 옛말 드러 굴아주주게. 그거 기억햇다네 굴으는 거.

- 핵심어: 허옹애기, 이승, 할망(할머니)